

거절 민감성과 연속적 언쟁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Rejection Sensitivity and Dysfunctional Communication Patterns of Serial Arguing

이상은*, Michael E. Roloff**
상명대학교 디지털이미지학과*, Northwestern University**

Sangeun Lee(jetzt1234@gmail.com)*, Michael E. Roloff(m-roloff@northwestern.edu)**

요약

요구-철회 커뮤니케이션은 연속적 언쟁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역기능적 의사소통 패턴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철회 패턴이 연속적 언쟁의 지속성을 어떻게 증가시키는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거절 민감성이 파트너의 부정 행동 인식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이는 연속적 언쟁 시 나타나는 요구-철회 패턴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연속적 언쟁이 해결되었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가정했다. 직렬 매개모형을 분석한 결과 연속적 언쟁이 해결되었다고 인식하는 것과 상관없이 거절 민감성은 연속적 언쟁이 상호 합의를 수반했다는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적 상관관계는 부분적으로 개인의 거절 민감성이 연인관계에 있는 파트너가 일반적으로 부정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연속적 언쟁 시 자기 요구-파트너 철회의 의사소통을 발생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연속적 언쟁 | 거절 민감성 | 요구-철회 패턴 | 인정과 부정 커뮤니케이션 행동 | 갈등 해결 |

Abstract

Demand/withdraw communication is an important dysfunctional pattern of serial arguing. This study aims at addressing factors that affect the ways in which self-demand/partner-withdraw pattern increases the likelihood of persistence of serial arguing. We posit that sensitivity to rejec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degree to which individuals perceive a partners' behavior as generally disconfirming, which is positively related to enactment of self-demand/partner-withdraw during an argumentative episode. This sequence is positively related to perception of arguments as unresolved. In addition, among those who reported their argument was resolved, this sequence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likelihood that the argument is resolved without mutual agreement. Serial mediation analysis confirmed that the likelihood of resolution without mutual agreement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rejection sensitivity partially because high RS individuals are likely to perceive their partner to be generally disconfirming and to enact self-demand/partner-withdraw communication during the episode. However, this pattern did not apply to perception of the argument as resolved.

■ keyword : | Serial Arguing | Rejection Sensitivity | Demand-withdraw Pattern | Confirming and Disconfirming Communication Behaviors | Conflict Resolution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인관계 갈등은 종종 단일 사건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일부 갈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대인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고 해당 파트너들이 지속적으로 언쟁을 하는 경우 연속적 언쟁(serial arguing)이 발생하게 된다[1]. 연속적 언쟁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며 이는 파트너 중 한 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계속적으로 상대 파트너를 언쟁에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속적 언쟁의 지속성은 연속적 언쟁 시 발생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양상과 관련이 있다. 대표적으로 요구-철회 패턴(demand-withdraw pattern)을 들 수 있다. 한 사람은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계속해서 회피함으로써 형성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연속적 언쟁의 해결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2]. 연속적 언쟁의 결과적인 측면에서 관계의 질이나 개인의 행복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3] 연속적 언쟁의 과정에 있어서 요구-철회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로 인해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연속적 언쟁에 있어서 개인의 거절 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이 부적응적 반응을 높이는 요인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거절 민감성이 어떻게 요구-철회 패턴에 영향을 끼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둘째, 요구-철회 패턴이 연속적 언쟁의 문제 해결 가능성과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2.1 연속적 언쟁의 자기 요구-파트너 철회 패턴

대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의견 대립은 해당 관계의 파트너들이 그들의 관계나 문제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빈번하게 발생한다[1][4].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경우 단 한 번의 다툼이나 언쟁으로 문

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의견 대립을 반복하게 된다. 언쟁이 한 번 발생한 이후에 당분간은 해당 문제에 대한 의견 대립이 줄어들거나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1]. 그러나 해당 문제에 대한 과거의 언쟁에 대해 걱정이나 분노를 느끼는 경우 사람들은 그에 대해 계속적으로 생각하거나 반추(rumination)하기 때문에 관련 언쟁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4][5]. 이와 같은 연속적 언쟁은 관계의 질과[6][7] 개인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3][8][9]. 이러한 영향은 언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응적 반응과 관련이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요구-철회 패턴을 들 수 있다[3][4][10][11].

요구-철회는 대인관계에 속해 있는 두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때 한 사람은 불평하고, 잔소리를 하거나 비난하며 상대방의 변화를 재촉하는 요구 행동을 하는 반면 상대편 파트너는 침묵을 지키거나 대화 주제를 돌리거나 문제를 피하는 회피성 행동을 하는 의사소통 양상을 말한다[12][13]. 특히 연속적 언쟁에 있어서 자기 요구-파트너 철회 패턴은 언쟁 시 나타나는 개인들의 전형적인 역할과 관련이 있다[6]. 파트너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보통 싸움을 시작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후에 발생하는 언쟁을 시작하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6]. 그에 반해 상대 파트너의 요구 행동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변화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상대 파트너의 공격적인 행동을 피하고자 회피 행동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6][14]. 이러한 자기 요구-파트너 철회 의사소통 양상은 그 후에 발생하는 일련의 연속적 언쟁에서도 지속된다[9].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적응적 의사소통 양상은 관계의 만족도[15]나 친밀도[16]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며 지각된 스트레스[16]나 과잉 흥분[3]의 정도를 높게 된다.

요구-철회 패턴이 연속적 언쟁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되어 왔지만 어떻게 이러한 영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요구-철회 패턴이 사람들의 갈등 해결 능력, 특히 상호 합의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요구-철회 패턴은 필연적으로 한 파트너가 상호작용을 그만 두거나 피하는 등의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갈등 해결의 가능성, 특히 상호 합의 또는 결의에 기반한 갈등 해

결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자기 요구-파트너 철회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 행복한 커플들의 경우 높은 수준의 요구-철회 행위가 항상 문제 해결을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인식했지만 이러한 패턴으로 인해 그들이 겪었던 갈등의 60%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또한 연속적 언쟁으로 형성된 요구-철회 패턴은 지각된 갈등 해결 정도를 감소시키고[4][6] 추후 언쟁의 빈도수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

연속적 언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구-철회 패턴이 형성될 가능성은 개인의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 요구-파트너 철회 패턴은 갈등에 대한 신경과민 및 우호성[18] 그리고 애착 유형[19]과 관련이 있다. 또한 파트너의 행동에 대한 개인의 일반적인 인지와 반응의 성향이 요구-철회 패턴으로 인해 형성되는 개인의 역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관계적 행동은 서로에게 협조하거나 지지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파트너들이 서로를 괴롭히는 행동도 빈번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대응도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맞서 대응하려고 하지 않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파트너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하나의 예로 거절 민감성을 들 수 있다.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교환되는 단서들(cues)을 '거절'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연속적 언쟁 시 일련의 부적응적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음에서 거절 민감성으로 인한 부적응적 반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2 거절 민감성

거절 민감성은 상대방의 거절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고 소소한 단서들도 예민하게 받아들여 거절의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이에 대해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경향성을 말한다[20]. 즉 인지적, 감정적 처리에 대한 사람의 기질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거절에 대한 편향적 해석과 강한 정서적, 행위적 반응을 유발하는 내적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20][21]. 어린 시절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거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후 미래의 타

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나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절 민감성을 발달시키며 이는 거절에 대한 기대(rejection expectation)와 예상되는 염려 또는 불안(anticipatory anxiety)을 높이게 된다[20][22][23]. 실제로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가 되는 동안 겪은 대인관계로 인해 거절 민감성 높아지는 경우 청년기에 겪는 관계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관계에 몰두하는 정도나 관계에 대한 확신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관계가 깨진 후 느끼는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반면 스트레스 해소 후 발생되는 개인적인 성장의 정도는 낮아졌다[24].

거절 민감성은 대인 갈등 시 나타나는 사람들의 인지와 행동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 거절을 당하는 것에 민감한 사람들은 거절에 대한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파트너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모호한 거절의 단서들을 예민하게 인지하고 파트너에게 거절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23]. 예를 들어 거절 민감성이 높은 여성들은 연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 느끼게 되면 갈등 시 적대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25]. 특히 거절 민감성이 높은 여성들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논의할 때 파트너를 비하하거나 파트너의 책임감 부족을 표현하는 적대적인 성격의 언어적, 비언어적(non-verbal) 행동을 함으로써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22]. 마찬가지로 거절 민감성이 높은 남성들의 경우 육체적인 폭력과 질투심[26] 및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행동[20]을 보이기 쉽다.

거절에 민감한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언쟁에 대해 높은 불안감을 느끼고 언쟁을 상대편 파트너의 거절로 인지하기 때문에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포함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연속적 언쟁의 해결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거절 민감성은 상대방의 거절에 대해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촉진하게 되며 파트너는 이러한 과잉 반응을 보이는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을 수용하기 어렵게 된다[22]. 실제로 거절 민감성이 높은 여성들은 거절 민감성이 낮은 여성들에 비해 연인관계에 있는 파트너와의 갈등 후에 그들의 파트너가 자신들의 행동을 받아주지 않고 회피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또한 거절 민감성은 관계 자체를 끝내는 부정적인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파트너라도 높은 거절 민감성을 보이는 커플은 두 명의

파트너 모두 낮은 거절 민감성을 보이는 커플과 비교해서 일 년 안에 헤어질 확률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2]. 최근 연구에서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일 수록 파트너와 겪은 갈등이 당사자들의 관계를 개선하기 보다는 나쁘게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상관성은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27].

거절 민감성과 적대적인 행동의 연관성은 검증되어 왔지만 거절 민감성과 요구-철회 패턴 및 연속적 언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거절 민감성으로 인한 방어적인 동기로 인해 거절 민감성이 연속적 언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거절에 대한 반응의 차원에서 거절 민감성은 자기 방어 동기로 작용하게 되며 이는 파트너들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과잉 행동들로 나타날 수 있다[20][22][25]. 특히 대인 갈등과 같이 파트너의 거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파트너의 행동이 거절에 대한 불안함을 실제로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된다면 거절 민감성이 활성화되어 이로 인한 과잉 반응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28]. 예를 들어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파트너의 관계 불만족을 인식할 경우 파트너의 거절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22].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대인관계 결과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거나 파트너의 무신경한 행동(예를 들어, 부주의하고, 냉담한 행동)을 의도적인 거절로 인지하게 된다[20].

위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거절 민감성이 활성화되어 편향된 해석이나 과잉 행동 반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절의 단서를 빈번하게 인지할 만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본 연구는 연인관계에 있는 파트너가 자신을 부정하는 행동(disconfirming behavior)을 한다고 인식하게 되면 거절 민감성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파트너가 자신이나 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거나 무신경하게 행동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게 될 경우 연속적 언쟁 시 거절민감성이 부적응적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상대방을 인정/부정하는 행동은(confirming and disconfirming behavior)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수용의 정도를 나타낸다[29]. 상대방을 부정하는 커뮤니케

이션 행동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의 존재, 생각 및 감정을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하여 무관심(indifference), 둔감함(imperviousness), 자격박탈(disqualification)의 세 가지 차원의 의사소통 행위를 포함한다[30]. 예를 들어 무관심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참여 의지의 부재를 의미하며 둔감함은 상대방의 견해와 감정에 대한 이해 부족을 의미한다. 자격박탈은 상대방의 메시지나 대화에 대한 직접적인 거절을 의미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말한다[31]. 이와 같은 상대방을 부정하는 커뮤니케이션 행동은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전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인관계에서 한 개인이 파트너의 부정 커뮤니케이션 기류(disconfirming communication climate)를 느끼거나 인지하게 되면 파트너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걱정[32]을 하게 되며 파트너와의 개방된 의사소통을 회피[27] 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요구-철회 패턴[29]이 유발될 수 있다.

3. 연구 가설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편 파트너가 일반적으로 자신을 부정한다는 인식은 언쟁 시 거절에 민감한 사람들로 하여금 파트너의 행동이 부정적인 의도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거절 민감성을 활성화 할 것이다. 파트너와의 연속적 언쟁 시 위와 같은 인식은 파트너의 변화를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형태의 의사소통 행위를 초래할 것이다. 반면 상대편 파트너는 이러한 과잉 행동에 대해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는 연속적 언쟁에 있어서 부적응적 상호작용의 한 형태인 자기 요구-파트너 철회 패턴을 촉발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거절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거절에 대한 불안감을 확신시키게 되고 이는 연속적 언쟁의 해결 여부 및 상호 합의 정도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했다.

가설 1: 거절 민감성은 연속적 언쟁이 해결되었다는 인식에 부(-)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관계적 파트너가 일반적으로 자신을 부정하는 행동을 한다는 인식과 자기 요구-파트너 철회 패턴에 의해 매

개될 것이다.

가설 2: 연속적 언쟁이 해결되었다고 인식하는 응답자 그룹에서 거절 민감성은 연속적 언쟁이 상호 합의 없이 해결되었다고 인식할 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관계적 파트너가 일반적으로 자신을 부정하는 행동을 한다는 인식과 자기 요구-파트너 철회 패턴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미국의 중서부 대학(Midwestern university)의 커뮤니케이션 학부($n=38$ 명), backpage.com($n=1267$ 명), psychanover.com($n=54$ 명), socialpsychorg.com($n=16$ 명), 그리고 개인적인 네트워크($n=84$ 명)를 통해 총 1459명의 참여자를 모집했다.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학생들은 연구 설문 참여에 대한 추가 점수를 받고 다른 참여자들은 설문 참여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받지 않았다. 가설 검증에는 총 9개의 변수가 사용되었으며 참여자들이 다중항목 척도에서 1-2 가지 항목에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그 항목에 대해서는 완료된 항목의 평균으로 대체했다. 응답의 정도가 낮은 257명을 제외한 1,202명을 최종 표본에 포함시켰다. 최종 표본은 315명의 남성(26.2%)과 886명의 여성(73.7%)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연령은 30.27세($SD = 10.17$)로 나타났다. 1,202명의 참여자 중 1,055(87.8%)명이 현재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연속적 언쟁에 대해 보고했으며 나머지 147명(12.2%)은 가장 최근의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연속적 언쟁에 대해 보고했다.

2. 연구 절차

모든 절차는 대학의 기관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으며 참여자들은 이메일, 웹사이트, 또는 SNS 게시물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설문에 참여했다. 참여자들에게 설문 참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으며 모든 답변은 익명으로 이루어지

며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되지 않을 것임을 전달했다.

3. 측정 도구

설문지에는 가장 최근에 겪었던 연인관계 파트너와의 연속적 언쟁의 특성, 거절 민감성, 파트너의 일반적인 인정/부정 행동에 대한 인식, 요구-철회 패턴, 연속적 언쟁의 해결 여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연속적 언쟁 해결의 상호 합의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연속적 언쟁에 대한 정의를 설명했다. “연속적 언쟁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파트너와 동일한 문제에 대해 언쟁하거나 갈등을 겪을 때 발생한다. 단, 동일한 문제에 대해 여러 번(최소한 두 번)의 언쟁을 벌여야 한다.” 연속적 언쟁에 대한 설명을 읽은 참여자들에게 최근의 언쟁을 떠올려 그 언쟁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요청했다. 최근 언쟁에 대한 서술 후 언쟁 과정 및 결과의 측면을 평가하는 항목에 응답하도록 요청했다.

언쟁의 주제는 질투(예: 외도, 다른 이성과의 관계), 함께 보내는 시간, 관계에 대한 헌신/친밀감, 인정의 표현(예: 반응 정도, 이해도), 애정 표현, 언쟁 스타일(예: 회피, 통제, 감정적), 장거리 관계, 가사, 재정 문제(예: 직업, 돈) 및 습관(예: 게으름, 음주, 식사)이 포함되어 있었다. 첫째, 참여자들은 주로 누가 연속적 언쟁을 시작하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응답했다. 545명(45%)은 자신이 먼저 언쟁을 시작하는 것으로, 441명(36%)은 파트너가 주로 언쟁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둘째, 참여자들은 연인관계 파트너와 최근의 연속적 언쟁 이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경과했는지 보고했다(1=1주일 미만-5=1년 이상). 평균적으로 참여자들은 연속적 언쟁이 일어난 지 1주 이상 1개월 미만이 지났다고 보고했다($M=1.90$, $SD=1.17$). 셋째, 참여자들은 파트너와의 연속적 언쟁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응답했다(1=전혀 하지 않음-6=매우 자주 함). 평균적으로 연속적 언쟁은 가끔 또는 상당히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M=4.34$, $SD=1.26$).

3.1 거절 민감성

Downey & Feldman(1996)[2]이 개발한 거절 민감성 설문지(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에 기반하여 수정된 성인 거절 민감성 설문지(A-RSQ; Downey & Berenson, & Kang, 2006)[33]를 사용했다. 성인 거절 민감성 설문은 중요한 타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해 상대방의 거절을 겪을 수 있는 9개의 가설적 상황을 제시한다. 거절불안 문항은 각 상황에서 자신의 요구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이 얼마나 염려되거나 불안한지에 대해 1(매우 염려하지 않음)에서 6(매우 염려함)까지의 6점 척도로 측정했다. 수용기대 문항은 각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할지에 대한 응답자의 예상을 1(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음)에서 6(매우 그럴 것 같음)까지 6점 척도로 측정했다. 거절 민감성 점수는 각 상황에 대한 거절불안 점수와 거절기대 점수(7-수용기대)를 곱한 후 총 상황의 수인 9로 나눈 값으로 측정되었다($M=10.215$, $SD=3.53$). 신뢰도(Cronbach's α)는 .65로 높지는 않지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측정 항목들이 단일요인모형에 의해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이는지 평가하기 위해 거절 민감성의 9개 항목에 대해 확인적 요인 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했다. χ^2 통계량의 유의확률이 $p>.05$ 인지, 비교부합치(CFI: Comparative Fit index)가 .95이상인지 그리고 잔차제곱평균제곱근(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이 .08이하인지 판단했다[34]. 단일 요인모형은 $\chi^2(27, N=982)=252.94$, $p<.05$, CFI= .78, RMSEA=.09로 보통의 적합도를 보였다.

이에 모형 적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살펴보았다. 수정지수는 모형의 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지수로 두 항목의 오차항(error terms)간의 공분산을 설정해 적합도를 높일 수 있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오차 공분산 4개를 연결하여 모형을 수정한 결과 $\chi^2(23, N=982)=74.516$, $p<.05$, CFI= .95, RMSEA=.05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모든 측정변수들이 해당 구성개념에 유의하게 적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거절 민감성 측정 문항

측정 문항
1) 당신은 부모나 다른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 당신은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도움을 줄지에 대해 얼마나 염려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 당신은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할 수 있을 만큼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2) 당신은 친한 친구를 매우 언짢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 후 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 당신은 친한 친구가 대화를 수락할 것에 대해 얼마나 염려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 당신은 당신의 친한 친구가 언짢았던 일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3) 당신은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에게(예: 부모, 연인, 자녀, 친구 등) 피임이 얼마나 중요하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 당신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얼마나 염려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 당신은 그 사람이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임과 관련 방법에 대해 가까이 대화할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4) 당신은 직장 상사에게 업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 당신은 직장 상사가 도움을 줄지에 대해 얼마나 염려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 당신은 직장 상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5) 당신은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과(예: 부모, 연인, 자녀, 친구 등) 큰 싸움 이후 화해하기 위해 전화를 걸거나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과 화해하려고 할지에 대해 얼마나 염려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 당신은 그 사람이 적어도 화해의 시도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6) 당신은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에게 당신에게 중요한 이벤트에 참석해 주기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 당신은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그 이벤트에 참석할지에 대해 얼마나 염려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 당신은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그 이벤트에 참석할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7) 당신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친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 하려고 합니다. •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과 대화를 할지에 대해 얼마나 염려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8) 당신은 최근에 당신과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과 (예: 부모, 연인, 자녀, 친구 등) 거리가 생겼다고 느껴 그 사람에게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을 여전히 아끼고 가까이 지내고 싶어할지에 대해 얼마나 염려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 당신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9)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어떤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 친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 당신은 그 친구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지에 대해 얼마나 염려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 당신은 그 친구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3.2 연인관계 파트너의 부정 행동에 대한 인식

연인관계 파트너의 부정 행동에 대한 인식은 부모 인정 행동 지표(Parent Confirmation Behaviors Indicator scale, PCBI)[35]를 수정하여 측정했다. 응답자들은 파트너가 28개의 항목에서 제시하는 인정 또는 부정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1(전혀 동의하지 않음)부터 7(매우 동의함)까지의 7점 척

도로 응답했다[표 2]. 인정 행동에 대한 12개 항목에 대한 값은 역으로 코드화하여 28개 항목 모두 높은 점수가 높은 수준의 부정 행동을 의미하도록 했다($M=4.44$, $SD=1.29$). 신뢰도는 .95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연인관계 파트너의 부정 행동에 대한 인식에 대한 28개의 측정 항목들이 단일요인모형에 의해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chi^2(350, N=982)=6421.468$, $p<.05$, CFI=.69, RMSEA=.133로 좋지 않은 적합도를 보였다. 수정지수를 기반으로 60이상의 높은 수정지수를 보이는 오차항을 연결하여 모형을 수정한 결과 $\chi^2(261, N=982)=1439.36$, $p<.05$, CFI=.94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였다.

표 2. 파트너의 부정 행동에 대한 인식 측정 문항

	측정 문항
인정 행동	1) 그/그녀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스포츠 경기, 음악 페스티벌 또는 다른 이벤트에 함께 간다.
	2) 그/그녀는 내가 유일무이하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에게 표현한다.
	3) 그/그녀는 나에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 하면 진심으로 들어준다.
	4) 그/그녀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 표현한다. (예: "너가 정말 화나고 실망했더니 미안해")
	5) 그/그녀는 개인적인 대화를 할 때 집중한다.
	6) 그/그녀는 대화를 할 때 나와 눈을 계속해서 마주친다.
	7) 그/그녀는 내가 최근 일, 가족 등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8) 그/그녀는 나와 대화하는 중에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적절한 표정을 짓는다.
	9) 그/그녀는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표현하도록 한다.
	10) 그/그녀는 나와 대화하는 중에 명확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11) 그/그녀는 나의 의견을 구하거나 물어본다.
	12) 그/그녀는 나와 계속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
부정 행동	13) 그/그녀는 나와 대화하는 중에 관련 없는 이슈를 이야기 한다.
	14) 그/그녀는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반응을 보인다.
	15) 그/그녀는 차갑고 인간미 없는 반응을 보인다.
	16) 그/그녀는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보낸다.
	17) 그/그녀는 대화 도중 내 말을 끊는다.
	18) 그/그녀는 내 행동이나 행동의 이유를 당연히 알았다는 듯이 이야기한다. (예: "너는 항상 그런 식으로 행동해")
	19) 그/그녀는 나를 만지거나 포옹하거나 어깨를 두드려 주는 등의 신체 접촉을 피한다.
	20) 그/그녀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무시한다.
	21) 그/그녀는 혼자만 이야기 한다. (예: 본인이 해야 할 말만 계속 한다,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22) 그/그녀는 나를 흘려본다.
	23) 그/그녀는 같은 공간에서 나를 무시한다.
	24) 그/그녀는 내가 표현한 감정에 대해 비난한다.
	25) 그/그녀는 내 감정을 표현하려는 나의 시도를 무시한다.
	26) 그/그녀는 나를 비하하거나 업신여긴다.
	27) 그/그녀는 나를 부정적인 감정이 섞인 말투로 부른다.
	28) 그/그녀는 내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표현한다.

3.3 자기 요구-파트너 철회 패턴

자기 요구-파트너 철회 패턴은 선행된 연구[3][12]에서 수정해서 사용한 의사소통패턴 척도(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 CPQ)[36]의 3가지 항목으로 측정했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한 패턴이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대해 1(매우 적음)에서 7(매우 많음)까지의 7점 척도로 응답했다[표 3].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중간 수준의 자기 요구-파트너 철회를 보고했다($M=3.62$, $SD = 1.68$).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자기 요구-파트너 철회 패턴에 대한 3개의 측정 항목들이 단일요인모형에 의해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chi^2(8, N=982)=59.747$, $p<.05$, CFI=.98, RMSEA=.08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였다.

표 3. 자기 요구-파트너 철회 패턴 측정 문항

측정 문항
1) 나는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 했고, 반면 파트너는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를 피했다.
2) 나는 잔소리하고 요구하고 비난했고, 반면 파트너는 자리를 피하거나 침묵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를 거부했다.
3) 나는 파트너를 원망했고, 반면 파트너는 나를 무시했다.

3.4 연속적 언쟁의 해결

연속 언쟁의 해결은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첫째, 응답자들은 최근에 일어난 연속적 언쟁이 해결되었다고 느끼는지 응답했다(1=예; 0=아니오). 둘째, 연속적 언쟁이 해결되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연속적 언쟁의 해결이 상호 합의를 수반한 정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새로운 척도를 개발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관련 척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Vuchinich(1987)[37]의 가족 갈등에 대한 관찰 연구를 기반으로 척도를 개발했으며 이 연구에서 제안되지 않은 몇 가지 다른 해결 방식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총 10개의 항목을 측정했다: (1)나는 파트너의 의견을 따라주고 그/그녀에 동의했다, (2)파트너가 나의 의견을 따라주고 나에게 동의했다, (3)제3자가 개입했다, (4)우리는 서로 조금씩 포기하고 중간 지점의 합의를 만들어 냈다, (5)우리는 우리가 서로 동의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했다, (6)나는 말하기를 거부하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 (7)파트너가 말하기를 거부하거나 그 자

리를 피했다, (8)나는 우리의 관계를 끝내버렸다, (9)파트너가 우리의 관계를 끝내버렸다, (10)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논의를 미뤘다. 연속적 언쟁이 해결되었다고 인식했던 응답자들에게 위와 같이 제시된 연속적 논쟁의 해결 방식에 얼마나 동의하는지(1=매우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 응답하도록 했다.

측정 항목들이 단일요인모형에 의해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이는지 평가하기 위해 위의 10개 항목에 대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단일요인모형은 $\chi^2(35, N=202)=93.895, p<.01, CFI=.85, RMSEA=.09$ 로 적합도가 좋지 않았다. 우선적으로 표준화된 요인 적재량 (standardized factor loading)이 .50 미만인 4개 항목을 제외할 것을 고려했다. 파트너의 의견을 따라주고 동의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2개의 항목(1)과 (2)는 합의보다는 포기 또는 항복함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타협에 초점을 둔 항목(4)는 상호 동의를 의미하지만 다른 항목과 잘 맞지 않아 척도에서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서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에 동의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항목(5)는 합의의 형태를 나타내며 요인 적재량이 .492로 .50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표 4]에서 보듯이 제외하기로 결정한 3개의 항목을 뺀 나머지 7개의 항목을 포함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적합도 지수는 $\chi^2(13, N=202)=16.217, p<.01, CFI=.99, RMSEA=.04$ 로 적절한 적합도를 보였다. 7개 항목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연속적 언쟁의 해결에 상호 합의를 수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M=2.71, SD=1.38$).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표 4. 상호 합의를 수반하지 않은 해결 측정 문항

측정 문항
1) 제3자가 개입했다.
2) 우리는 우리가 서로 동의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했다.
3) 나는 말하기를 거부하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
4) 파트너가 말하기를 거부하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
5) 나는 우리의 관계를 끝내버렸다
6) 파트너가 우리의 관계를 끝내버렸다.
7)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논의를 미뤘다.

III. 연구 결과

1. 기초통계 결과

단면조사연구(cross sectional study)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성별, 관계 상태, 일반적으로 언쟁을 시작하는 사람(typical initiator), 최근의 연속적 언쟁이 발생한 후 지난 시간과 연속적 언쟁의 빈도를 포함한 5가지 항목을 통제 변인으로 사용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별과 일반적으로 언쟁을 시작하는 사람은 요구-철회 패턴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38]. 거절 민감성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도 선행된 연구에서 밝혀졌다[20]. 본 연구는 현재 관계는 끝났더라도 헤어진 연인과의 연속적 언쟁에 대한 경험과 관련해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기 때문에 현재 연인관계의 상태를 통제했다. 연인관계의 상태에 따라 관계 및 파트너의 행동에 대한 편향된 해석(예: 애정의 정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언쟁에 대한 개인의 기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곡될 수 있으므로 최근의 연속적 언쟁이 발생한 후 지난 시간을 통제했다. 마지막으로 연속적 언쟁의 빈도는 응답자들이 언쟁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덜 관대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 변인에 포함했다.

표 5. 측정변수들의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N=1202)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거절 민감	.65	.31**	.16**	-.07*	.16*	-.01	.07*	.01	-.03	.13**
2. 부정 행동		.95	.40**	-.19**	.57**	-.06*	.08**	-.05	-.08**	.38**
3. 요구 철회			.80	-.16**	.53**	.06	.01	.17**	-.06	.27**
4. 해결				--	.c	-.10**	.09**	-.045	.17**	-.27**
5. 상호 합의 없는 해결					.80	-.10	.21**	-.10	.19**	.23**
6. 성별						--	-.12**	.14**	-.10**	.12**
7. 관계 상태							--	-.01	.46**	-.01

8. 재개자									--	.00	.00
9. 언쟁기간										--	-.15**
10. 언쟁빈도											--
평균	10.22	3.57	3.62	--	2.	--	--	--	--	1.90	4.34
표준편차	3.37	1.36	1.73	--	1.38	--	--	--	--	1.17	1.26

* $p < .05$, ** $p < .01$, *** $p < .001$

[표 5]에서는 본 연구의 매개 분석(mediation analysis)에 사용된 변수들의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다중항문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대각선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여성=1, 남성=0)은 파트너의 부정 행동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 = -.06, p < .05$). 연인관계의 상태(종료된 관계=1, 현재 진행 중인 관계=0)는 거절 민감성($r = .07, p < .05$) 및 파트너의 부정 행동에 대한 인식($r = .08, p < .01$)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최근의 연속적 언쟁이 발생 후 지난 시간은 파트너의 부정 행동에 대한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 = -.08, p < .01$). 연속적 언쟁의 빈도는 거절 민감성($r = .13, p < .01$), 파트너의 부정 행동에 대한 인식($r = .38, p < .01$) 및 요구-철회 패턴($r = .27, p < .01$)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2.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는 Hayes의 PROCESS Macro(Hayes, 2012)를 사용하여 가설검증을 하였다. PROCESS Macro는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의 크기를 검증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매개변수 2개를 포함한 직렬 매개모형을 살펴보기 위해 Model 6를 사용했으며 그 안에 포함된 짧은 매개경로가 유의미한지 여부도 검증했다. 본 연구는 부트스트랩(bootstrap)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매개효과 검증에 수반될 수 있는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편차교정된(bias-corrected)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신뢰구간을 보정하고 통계적인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다[39]. 본 연구에서는 5,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생성하여 분석하

였으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해당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가설 1은 거절 민감성과 연속적 언쟁의 해결에 대한 인식과의 상관관계가 파트너의 부정 행동에 대한 인식과 자기 요구-파트너 철회 패턴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개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하한 값과 상한 값 사이)이 0의 값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설 1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트너의 부정 행동에 대한 인식으로 매개되는 거절 민감성에서 연속적 언쟁의 해결에 대한 인식에 이르는 짧은 매개경로는 매개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22, 95\% CI = -.037 \text{ to } -.008$).

표 6. 가설 1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변인	B'	SE	R²	
거절 민감성	-.004	.026		
파트너부정행동	-.225**	.074		
요구철회	-.089	.054		
성별 ²	-.346	.178		
관계상태 ³	.317	.257		
언쟁재개자 ⁴	-.175	.167		
언쟁기간	.213**	.074		
언쟁빈도	-.392***	.070	.107	
직접효과	Coeff	SE		
거절 민감성→ 해결	-.028	.040		
간접 효과	Coeff	Boot SE	95% Boot LLCI ⁵	95% Boot ULCI
거절 민감성→ 파트너부정행동→ 해결	-.022	.008	-.037	-.008
거절 민감성→ 파트너부정행동→ 요구-철회→ 해결	-.004	.003	-.009	.001
거절 민감성→ 요구철회→ 해결	-.002	.002	-.007	.001

¹ 비표준화 매개계수

² 0=남자; 1=여자

³ 0=현재 연인관계; 1=과거의 연인관계

⁴ 0=다른 사람 재개; 1=본인 재개

⁵ 편차교정된 95% 신뢰구간

* $p < .05$, ** $p < .01$, *** $p < .001$

가설 2는 연속적 언쟁이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는 그룹에서 거절 민감성과 연속적 언쟁의 해결이 상호 합의를 수반하지 않는 정도와의 상관관계가 파트너의 부정 행동에 대한 인식과 자기 요구-파트너 철회 패턴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개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이 0의 값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가설 3에서 가정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15$, 95% CI=.005 to .029). 파트너의 부정 행동에 대한 인식이 매개하는 거절 민감성과 연속적 언쟁의 해결이 상호 합의를 수반하지 않는 정도 사이의 간접경로에 대한 신뢰 구간도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34$, 95% CI=.013 to .059).

표 7. 가설 2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변인	B ¹	SE	R ²	
거절 민감성	.008	.023		
파트너부정행동	.424***	.070		
요구철회	.282***	.049		
성별 ²	-.085	.159		
관계상태 ³	.068	.217		
언쟁재개자 ⁴	-.374*	.148		
언쟁기간	.131*	.063		
언쟁빈도	.047	.065	.458***	
직접효과	Coeff	SE		
거절 민감성→ 합의 없는 해결	.037	.025		
간접 효과	Coeff	Boot SE	95% Boot LLCI ⁵	95% Boot ULCI
거절 민감성→ 파트너부정행동→ 합의 없는 해결	.034	.012	.013	.060
거절 민감성→ 파트너부정행동→ 요구-철회→ 합의 없는 해결	.015	.006	.005	.029
거절 민감성→ 요구-철회→ 합의 없는 해결	-.004	.009	-.022	.013

¹ 비표준화 매개계수

² 0=남자; 1=여자

³ 0=현재 연인관계; 1=과거의 연인관계

⁴ 0=다른 사람 재개; 1=본인 재개

⁵ 편차교정된 95% 신뢰구간

* $p < .05$, ** $p < .01$, *** $p < .001$

IV. 결론

본 연구는 연속적 언쟁에 있어서 개인의 거절 민감성이 어떻게 부적응적 반응을 높이는지를 요구-철회 패턴과 관련해 살펴보고 그 결과 연속적 언쟁의 문제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거절 민감성과 해결되었다고 인식한 연속적 언쟁의 상호 합의 정도가 파트너의 부정 행동에 대한 인식과 자기 요구-파트너 철회 패턴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연속적 언쟁 시 발생한 자기 요구-파트너 철회 패턴이 어떻게 연속적 언쟁의 재발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연속적 언쟁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확장했다. 자기 요구-파트너 철회 패턴은 연속적 언쟁이 해결되었다는 인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해결되었다고 인식되는 연속적 언쟁이 상호 합의를 수반하는 정도와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적 언쟁이 해결되었다고 인식하는 것과 관계없이 자기 요구-파트너 철회 패턴은 언쟁 시 상호 작용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생성하여 파트너와 상호 합의에 기반한 문제 해결을 이루는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로 언쟁을 재개하는 사람은 언쟁이 해결된 것으로 인식할 수는 있지만 철회 또는 회피하는 파트너가 여전히 추가적인 논의나 상호 합의에 의한 해결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거절 민감성이 연속적 언쟁 시 자기 요구-파트너 철회 패턴이 유발될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거절 민감성은 파트너의 행동을 왜곡하여 해석하게 하는 인지의 틀을 생성하는데 기여하며 이는 연속적 언쟁 시 행동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절 민감성의 정서적 속성상 파트너의 부정 행동을 높게 인식할 것이며 이는 거절의 신호를 매우 예민하게 인지하게 만드는 조건을 조성할 수 있다. 거절에 민감한 사람들이 파트너로부터 자신의 존재, 감정, 생각 등이 부정 당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면 연속적 언쟁 시 파트너로부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정받기 위한 욕구를 보호하기 위해 파트너에게 과잉의 요구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본 연구는 연속적 언쟁이 해결되었다고 인식하는 경우 파트너의 부정 행동이 거절 민감성과 연속적 언쟁의 상호 합의 수반 정도에 대한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매개하는 간접경로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파트너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연속적 언쟁이 해결되었다고 인식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상호 합의에 도달했다고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거절 민감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파트너의 행동에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반응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상호 합의에 기반한 해결에 대한 통제력이나 욕구를 상실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 결과 거절 민감성은 사람들이 연속적 언쟁을 해결하는 방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 스스로 또는 파트너가 단순히 관계를 끝내거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는 연속적 언쟁이 해결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을 포함하는 관계가 지속된다면 그 후의 상호 작용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논의된 연구 결과는 연인관계 혹은 부부관계에 대한 상담의 실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인관계 혹은 부부관계에서 파트너에 대한 지각이나 갈등에 대한 적응적 소통방식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연속적 언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관계의 위기를 겪는 커플의 경우 언쟁 시 관계 인정 행동들(relationshipally confirming behavior)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실제로 실천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그들의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을 포함하는 관계의 경우 상대편 파트너가 직간접적으로 관계에 대한 헌신이나 몰두에 대한 표현을 할 것을 장려해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인식하는 관계적 상처를 줄이고 연속적 언쟁의 해결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4]. 또한 거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이전에 겪었던 연인관계 혹은 부부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욕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증거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연속적 언쟁의 상

황 또는 상대편 파트너의 행동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표본과 방법론에 있어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총 표본의 17%가 최종 표본에서 제외되었다. 제외된 표본은 인구통계학적 질문 이외의 질문에는 거의 응답하지 않은 경우나 다중항목 척도에 결측값이 많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배경과 종속 변인들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에서 최종 표본과 제외된 표본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본 연구는 연인관계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다른 관계(예: 부모, 동료)에서 연속적 언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도 본 연구 결과가 일반화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최종 표본은 주로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단면조사연구로 인해 간접경로의 인과관계를 확신할 수 없다. 다섯째, 변인들이 참여자의 자기 보고 형식으로 측정되었으므로 개인의 기억과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으로 인해 왜곡된 응답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향후 연구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연속적 언쟁의 부적응적 대응에 대한 거절 민감성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나의 예로 연속적 언쟁의 목표를 들 수 있다. 연속적 언쟁의 목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목표에 따라서 갈등 해결 전략과 해결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40]. 예를 들어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파트너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목적으로 연속적 언쟁에 임할 경우 그들은 요구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연속적 언쟁에 임하는 경우 그들은 파트너가 관계를 끝내거나 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순응(accommodation)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갈등 시 두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dyadic communication)에서는 상호작용 목표의 우선순위가 빈번하게 변동될 수 있음[41]을 고려했을 때 연속적 언쟁의 목표 변동이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이는 과잉 반응 정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실제로 거절 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파

트너의 인정을 얻기 위해 자기 침묵(self-silencing) 및 환심(ingratiation) 행동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42-44]. 그러나 사소하거나 모호한 신호가 쌓이면 갈등 시 지나치게 적대적인 반응으로 전환될 수도 있으며 [45] 이러한 전환은 과잉 순응(overaccommodation)에 의해 다소 촉진될 수도 있다고 밝혀졌다[46]. 이러한 결과는 연속적 언쟁 시 목표의 전환이 거절에 민감한 사람들의 부적응적 커뮤니케이션의 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의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는 다른 매개변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거절 민감성과 파트너의 부정 행동 인식의 유의미한 관계로 인해 거절에 민감한 사람들은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위의 두 변인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보면 거절에 민감한 사람들 스스로 건설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만드는 것 보다는 파트너가 건설적이고 협력적 의사소통 행동을 하는 것이 상호 합의에 의한 문제 해결을 달성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관련된 매개변인의 예로 파트너의 인정 행동을 들 수 있다. 거절에 민감한 사람은 파트너의 일반적인 상호 작용 방식에 대해 이미 편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속적 언쟁 시 나타나는 파트너의 인정 행동은 갈등의 해결 가능성이나 해결의 상호 합의 정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Burgoon(1993)의 기대위반이론(Expectation Violation Theory)[47]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연속적 언쟁 시 거절에 민감한 사람들이 파트너가 그들의 예상에서 벗어난 인정 행동을 한다고 인식하게 되면 오히려 요구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거절 민감성이 연속적 언쟁의 상호 합의에 기반한 해결 가능성을 낮추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언쟁 후 인식적 반응이 어떻게 연속적 언쟁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 예를 들어, Honeycutt(2003)[48]의 갈등 연결 이론(Conflict Linkage Theory)은 상호작용에 대한 상상(imagined interactions)이 갈등의 재발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연속적 언쟁에 대한 사후적 인지 과정으로써 반추(rumination)는 연속적 언

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5][11]. 예를 들어 연속적 언쟁 시 거절 민감성은 부적응적 의사소통 패턴을 증가시키고 언쟁 후에는 반추할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연속적 언쟁이 해결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 본 연구는 제1 저자의 박사 학위 논문 일부를 수정 및 보완 했습니다.

참 고 문 헌

- [1] R. Trapp and N. Hoff, "A model of serial argument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rgumentation and Advocacy*, Vol.22, No.1, pp.1-11, 1985.
- [2] J. P. Caughlin and R. S. Malis, "Demand/Withdraw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Connections with self-esteem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21, No.1, pp.125-148, 2004.
- [3] R. S. Malis and M. E. Roloff, "Demand/withdraw patterns in serial arguments: Implications for well-being,"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32, No.2, pp.198-216, 2006.
- [4] K. L. Johnson and M. E. Roloff, "Serial arguing and relational quality: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perceived resolvability," *Communication Research*, Vol.25, No.3, pp.327-343, 1998.
- [5] K. Carr, P. Schrodt, and A. M. Ledbetter, "Rumination, conflict intensity, and perceived resolvability as predictors motivation and likelihood of continuing serial arguments,"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76, No.5, pp.408-502, 2012.
- [6] K. L. Johnson and M. E. Roloff, "The influence of argumentative role (initiator vs. resistor) on perceptions of serial argument resolvability and relational harm," *Argumentation*, Vol.14,

- No.1, pp.1-15, 2000.
- [7] Q. Zhang, "Emotion matters in serial arguments: The effects of anger and compassion on perceived resolvability and relationship confidence in dating relationships,"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 Vol.31, No.1, pp.102-109, 2014.
- [8] J. L. Bevan and L. Sparks,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rate and benevolently biased serial argument perceptions and individual negative health perceptions," *Communication Research*, Vol.41, No.2, pp.1-25, 2012.
- [9] R. M. Reznik and M. E. Roloff, "Getting off to a bad start: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during an initial episode of a serial argument and argument frequency," *Communication Studies*, Vol.62, No.3, pp.291-306, 2011.
- [10] J. L. Bevan, A. Finan and A. Kaminsky, "Modeling serial arguments in close relationships: The serial argument process model,"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34, No.4, pp.600-624, 2008
- [11] Q. Zhang, L. Xie, and G. A. Maier, "The interpersonal effects of perceived partner anger and conflict strategies in serial arguments: Perceived resolvability and rumination as sense making mediators," *Ohio Communication Journal*, Vol.51, pp.141-167, 2013.
- [12] J. P. Caughlin and R. S. Malis, "Demand/withdraw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Connections with self-esteem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21, No.1, pp.125-148, 2004.
- [13] K. A. Eldridge and A. Christensen, "Demand-withdraw communication during couple conflict: A review and analysis," In P. Noller & J. A. Feeney (Eds.), *Understanding marriage: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couple interactio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89-322, 2002.
- [14] L. M. Sagrestano, C. L. Heavey, and A. Christensen, "Individual differences versus social structural approaches to explaining demand-withdraw and social influence behaviors," In K. Dindia & D. J. Canary (Eds.), *Sex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pp.361-377, 2006.
- [15] J. P. Caughlin, "The demand/withdraw pattern of communication as a predictor of marital satisfaction over time: Unresolved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28, No.1, pp.49-85, 2002.
- [16] T. D. Afifi and P. Schrodt, "'Feeling caught' as a mediator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avoidance and satisfaction with their parents in divorced and non divorced households," *Communication Monographs*, Vol.70, No.2, pp.142-173, 2003.
- [17] M. M. McGinn, P. T. McFarland, and A. Christensen,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demand/withdraw,"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23, No.5, pp.749-757, 2009.
- [18] J. P. Caughlin and A. L. Vangelisti, "An individual difference explanation of why married couples engage in the Demand/withdraw pattern of conflic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17, No.4-5, pp.523-551, 2002.
- [19] M. Givertz and S. Safford, "Longitudinal impact of communication patterns on romantic attachment and symptoms of depression," *Current Psychology*, Vol.30, No.2, pp.148-172, 2011.
- [20] G. Downey and S. Feldman,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6, pp.1327-1343, 1996.
- [21] G. Downey, V. Mougios, O. Ayduk, B. E. London, and Y. Shoda,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defensive motivational system: Insights from the startle response to rejection cues," *Psychological Science*, Vol.15, No.10,

- pp.668-673, 2004.
- [22] G. Downey, A. L. Freitas, B. Michaelis, and H. Khouri,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Rejection sensitivity and rejection by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5, No.2, pp.545-560, 1998.
- [23] S. R. Levy, O. Ayduk, and G. Downey,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In M. 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3-20, 2011.
- [24] J. C. Norona, V. Tregubenko, S. B. Boiangiu, G. Levy, M. Scharf, D. P. Welsh, and S. Shulman, "Changes in rejection sensitivity across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Associations with relationship involvement, quality and coping," *Journal of Adolescence*, Vol.63, pp.96-106, 2018.
- [24] O. Ayduk, G. Downey, A. Testa, and Y. Yen, "Does rejection sensitivity elicit hostility in rejection sensitive women?," *Social Cognition*, Vol.17, No.2, pp.245-271, 1999.
- [26] G. Downey, S. Feldman, and O. Ayduk,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Vol.7, No.1, pp.45-61, 2000.
- [27] J. M. Wang, A. C. Hartl, B. Laursen, and K. H. Rubin, "The high costs of low agreeableness: Low agreeableness exacerbates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in U.S. and Chinese adolescents," Vol.67, pp.36-43, 2017.
- [28] J. Pietrzak, G. Downey, and O. Ayduk, "Rejection sensitivity as an interpersonal vulnerability," In M. Baldwin (Ed.), *Interpersonal cognition*, New York: Guilford Press, pp.62-84, 2005.
- [29] R. M. Dailey, "Confirmation in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openness: Toward extending confirmation theory," *Communication Monographs*, Vol.73, No.4, pp.434-458, 2006.
- [30] K. N. Cissna and E. Sieburg, "Patterns of interactional confirmation and disconfirmation," In C. Wilder-Mott & J. H. Weakland (Eds.), *Rigor and imagination: Essays from the legacy of Gregory Bateson* New York, NY: Praeger, pp.253-282, 1981.
- [31] H. Weger, "Disconfirming communication and self-verification marriage: Associations among the demand/withdraw interaction pattern, feeling understood,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22, No.1, pp.19-31, 2005.
- [32] M. J. Beatty and J. A. Dobos, "Adult males' perceptions of confirmation and relational partner communication apprehension: Indirect effects of fathers on sons' partners," *Communication Quarterly*, Vol.41, No.1, pp.66-76, 1993.
- [33] G. Downey, K. R. Berenson, and J. Kang, "The adult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ASRQ). Columbia University," 2006, Retrieved from <http://socialrelations.psych.columbia.edu/measures/adultrs-questionnaire>.
- [34] B. M. Byrn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2nd ed.) New York, NY: Routledge, 2010.
- [35] K. Ellis, "Perceived parental confirmati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strument," *Southern Communication Journal*, Vol.67, No.4, pp.319-334, 2002.
- [36] A. Christensen and C. L. Heavey, "Gender differences in marital conflict: The demand/withdraw interaction pattern." In S. Oskamp & M. Costanzo (Eds.), *Gender issues in contemporary society* Newbury Park, CA: Sage, pp.113-141, 1993.
- [37] S. Vuchinich, "Starting and stopping spontaneous family conflic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49, pp.591-601, 1987.

[38] A. Christensena and C. L. Heavey, "Gender and social structure in the demand/withdraw pattern of marital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9, No.1, pp.73-81, 1990.

[39] A. F. Hay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2013.

[40] J. L. Bevan, K. D. Tidgewell, K. C. Bardull, L. Cusanelli, M. Hartsern, and D. Holbeck, "Serial argumentation goal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perceived resolvability and choice of conflict tactics," *Communication Quarterly*, Vol.55, No.1, pp.61-77, 2007.

[41] K. L. Keck and J. A. Samp, "The dynamic nature of goals and message production as revealed in a sequential analysis of conflict interaction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33, No.1, pp.27-47, 2007.

[42] M. S. Harper, J. W. Dickson, and D. P. Welsh, "Self-silence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35, No.3, pp.459-467, 2006.

[43] V. Purdie and G. Downey, "Rejection sensitivity and adolescent girls' vulnerability to relationship-centered difficulties," *Child Maltreatment*, Vol.5, No.4, pp.338-349, 2000.

[44] R. Romero-Canyas, G. Downey, K. S. Reddy, S. Rodriguez, T. Cavanaugh, and R. Pelayo, "Paying to belong: When does rejection trigger ingrat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9, No.5, pp.802-823, 2010.

[45] J. Pietrzak, G. Downey, and O. Ayduk, "Rejection sensitivity as an interpersonal vulnerability," In M. Baldwin (Ed.), *Interpersonal cognition* New York: Guilford Press, pp.62-84, 2005.

[46] R. Romero-Canyas, K. S. Reddy, S. Rodriguez, and G. Downey, "After all I've done for you: Self-silencing accommodations fuel women's

post-rejection host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49, No.4, pp.732-740, 2013.

[47] J. K. Burgoon, "Interpersonal expectations, expectancy violations, and emotional communication,"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Vol.12, No.1-2, pp.30-48, 1993.

[48] J. M. Honeycutt, "Imagined interaction conflict-linkage theory: Explaining the persistence and resolution of interpersonal conflict in everyday lif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l.23, No.1, pp.3-25, 2003.

저 자 소 개

이 상 은(Sang Eun Lee)

정희원



- 2011년 5월 : 미국 조지타운대학 커뮤니케이션학과(석사)
- 2016년 6월 :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커뮤니케이션학과(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상명대학교 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디지털미디어, 휴먼커뮤니케이션

Michael E. Roloff

정희원



- 1975년 8월 : 미국 미시간 주립 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석,박사)
- 1978년 9월 ~ 현재 :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관심분야〉 :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조직 커뮤니케이션